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얼마 전 라종일 교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받았다. 라 교수 외 5인이 공동 집필한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이란 책이다. 한데 우리나라에 박수 받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현실을 늘 안타깝게 여겨 왔던 터라 펍 흥미 있게 읽었다. 이 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원인을 외교, 언론, 정치구조, 리더십 등 다방면에 걸쳐서 분석해 놓았다. 그중에서 라종일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눈길을 끈다. "정해진 임기 동안 한시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과거의 업적을 이어받아 좋은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아예 원칙을 무시한 권위주의 시절이었지만 문민정부 이래의 대통령들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 단임제에 있다는 것이 라 교수의 견해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서 대통령은 그 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대권을 잡자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왕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조시대의 균형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하달된 정책을 집행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5년 임기 동안 '세상을 확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이를 밀어 붙이는 데에 따른 무리수, 이를 틈탄 측근들의 호가호위(狐假虎威), 패거리 정치, 연고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등의 폐해가 쌓인 결과 임기 말에는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당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홀로 공약을 해매는 리어왕'의 신세와 다를 바 없게 된다."(허태희 교수의 글)

그리고 이 가려한 리어왕은 재임 시절 자신이 그랬듯이 후임 대통령에 의해 무자비한 징벌을 받는다. 제왕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 편 잘못은 관찮은 것이어서 어떤 경우라도 감싸야 하고, 상대방의 경우는 가차 없는 비판과 함께 타격을 입히려 한' 재임 시절의 행위 즉 전 정권을 청산해야 할 악(惡)으로 여긴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역대 대통령들을 반복적으로 불행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대통령 개인의 권력욕과 금전적인 탐욕까지 더해져서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제 불행했던 대통령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현 대통령을 제외하고 우리는 건국 이래 11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모두가 불행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

외로 망명하여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연장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결국은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5·18광주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2·12 군사반란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퇴임 후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과 내란죄로 징역 12년과 추징금 2838억 원을 선고 받았다.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본인들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되는 통에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조사에 시달리다가 '부영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황령·뇌물 등의 죄목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여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22년 형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되었고, 윤보선·최규하 대통령도 또 다른 연유로 해서 불행하게 퇴임했다.

말썽한 대통령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견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고 국가의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을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빠른 시일에 달성한 성공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 힘입은 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 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만은 제발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고



이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 국회의원

천신만고 끝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는 느낌이다. 작년 8월 법안 발의 때부터 올해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운영 정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문화전당이 당초 목표대로 순항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아시아문화전당 시즌2'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특별법 개정은 '개악'의 전형이었다. 특별법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을 동일하게 규정했고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 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라는 부칙 조항을 달아 전당을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법인화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가 전당으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조직 간의 갈등을 불러왔고, 그것은 결국 콘텐츠의 부실을 가져왔다. 이는 관람객 저조로 이어졌으며 최악의 평가를 남기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맞섰다. 단일 법안을 놓고 상임위에서 연이어 세 차례나 논의하는 것도 진풍경이었고,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두 차례로 나누어 논의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다. 먼저 전당장이 조속히 선임되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당장이 선임되지 않았고 줄곧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었다.

서둘러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의 부진을 씻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학예연구원 중심의 '일하는 조직'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한다.

또한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력에 대한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민간정확이 힘을 합쳐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아시아문화전당에 다양한 도시의 주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전당의 운영을 들여다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 간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활동 주제들이 전당 운

영에 접근하는 것을 방어적 자세로 배척하는 것은 소통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행정 패러다임과 동떨어진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고 다수 스타트업 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광주에 한국 인공지능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지가 들어선다는 점이다.

광주의 특성을 담은 콘텐츠, 특히 5·18을 비롯한 광주 정신을 담은 콘텐츠의 제작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미스 사이공'에서처럼 무대를 압도하는 '헬기 장면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음악에 있어서는 이미 홍콩 사람들의 상처받은 가슴을 울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제는 세계 보편화될 수 있도록 세계의 주요한 보컬·아티스트 그룹이 무대에 올려 부를 수 있도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에 있어서는 광주가 세계를 향해 내놓을 새로운 표현의 장르를 개척해야 한다. 기존의 표현 기술은 젊은이들의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뉴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들이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전당은 창작제작센터(ACT센터)와 같은 관련 시설을 가능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강인한 의지로 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주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써 주신 이용섭 광주시장, 한 목소리로 성원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社說

코로나 피해 지원 추경 신속 처리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심의 일정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조1000억 원) 및 긴급 고용 대책(2조8000억 원), 방역 대책(4조1000억 원)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여기에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모두 19조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쯤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15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시나를 내로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

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매표용 짬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버리고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영입금이나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2·3차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코로나 한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지원금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농어업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겁낼 것 없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에서도 3만 명에 육박하는 사·도민이 1차 접종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접종 후 사망 사고와 이상반응 의심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가운데 전문가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 8건을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 백신 예방접종이 아닌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숨졌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어제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해조사반은 "조사 대상 8건의 사망 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8명의 사망자는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이며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조사반이 분석한 다른 추정 사망 원인은 뇌졸중·심부전·심근경색증·폐혈증·급성간염 등이다.

광주에서도 AZ백신 접종자 관련 이상 반응은 58건이었으나 모두 발열과 근육통 등 예방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으로 집계됐다. 아직 화이자백신 이상 반응은 없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크게 겁내거나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듯하다.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등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에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백신이 만능은 아닌 만큼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130번지에 자리한 금사정(鎭沙亭) 앞에는 천연기념물 제515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수령 500여 년을 헤아리는 이 나무는 아름답리 밑동에서 굵은 줄기가 갈라져 나와 반구형 모양새를 이뤘다.

나무의 유래는 조선 중종 14년(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암(靜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선비들은 '훈구파' 관료들의 음모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한편 담양읍을 가로지르는 담양천변에 조성된 관방제림(官防堤林·천연기념물 제366호)은 푸조나무·느티나무·팽나무 등 수백 그루의 고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다. 조선 인조 26년에 부사 성이성이, 철종 5년에 다시 부사 황종림이 이곳에 제방을 축조하고 나무를 심었다고 전해 온다. 이처럼 치수(治水)에 큰 뜻을 거슬러 올라간다. 정암(靜菴)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선비들은 '훈구파' 관료들의 음모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성균관 생원 임봉 등 나주 출신 선비 11명이 조광조의 억울함을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땅 사건 등기 의혹이 국민들의 공

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사전 정보를 갖고 사들인 토지에 보상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편백나무와 왕버드나무 등을 심었다고 한다. 이러한 '항랑주의' 나무 심기는 굵은 절개를 지키거나 물난리를 막겠다는 선인들의 나무 심기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이번 주말에는 과거 우리 선인들이 나무 한 그루 심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심고 가꾼 그 '반려나무'가 답답한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는 동반자가 될지도 모른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이선호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 교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봄이면 저를 데리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나가서 썩을 채취한 다음 가마솥에 썩개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곤 하셨다.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며 어머니 산소에 갈 생각 하니 마음이 설레고 추억에 잠기게 된다. 차가운 썩개떡바람을 맞으며 곧 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하다.

썩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건강식품으로써 오래 전부터 주목 받아 왔다. 썩의 한학 이름은 '애엽'으로 예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옛말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썩을 먹고 고쳤다'는 표현이 있듯이 썩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힐 만큼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방사능과 황사 등으로 신체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바로 썩이 피를 정화시키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 주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탁월하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썩을 오래 먹으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 썩을 구입할 때는 줄기가 뻗어나가지 않고

옛 조리서에서 만나는 '봄 향기'

응답에서 나온 어린 썩이 좋다. 이른 봄철 응달에서 자란 아리고 부드러운 잎이 향과 맛이 뛰어나다. 이른 봄에 어린 썩을 따서 삶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썩을 보관할 때는 수분이 약간 남아 있게 말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손질할 때는 어린 썩을 갈로 밑동을 잘라내고 소금물에 헹개 이용한다. 한자로 봉(蓬)은 썩이다. 썩은 봄에 돌아나, 이름 그대로 '썩썩' 자란다. 갓 나온 썩의 새싹은 향기롭고 피를 잘 돌게 하여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썩아(莪)자는 열십자(?)가 두 개로 100세를 뜻하니 썩을 먹으면 100세 산다는 의미로 풀기도 한다. 애엽(艾葉)은 썩에서 자와 잎엽자로 썩썩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썩을 식재료로 삼아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다.

옛 조리법을 담은 1680년경의 요록(要錄)에는 '썩절편'을 만드는 요리가 담겨 있다. 우선 썩잎을 잘게 찧 썰어 맑은 잿물에 삶아서 건져 놓았다가 여러 번 씻는다. 쌀가루에 그 썩을 넣고 섞어서 시루에 찌낸 다음 다시 잘 찧어서 안반 위에 놓고 기름을 발라 밀어서 임의대로 틀에 찍어 내면 된다.

또한 1800년대 말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썩어탕' 조리법이 소개돼 있다. 썩에서 썩이 뜯는 것을 뜯어다가 깨끗이 다듬고 씻어 한 줌 정도를 다진다. 쇠고기 한 줌 정도를 다져서 썩 다진 것과 합하고 기름장과 양념을 갖춰 넣고 주무른 후 밥만 하게 환을 만든다. 탕을 끓일 때 장국이 팔팔 끓으면 환에 달걀웃을 입힌 다

음 넣는다. 북어 껍질도 가시가 없게 하여 깨끗이 빨아서 갈고 끓이되 두 그릇 정도가 되도록 끓인다. 때로 동글게 환을 만들지 않고 다진 썩과 고기 양념한 것을 장국이 끓을 때 수저로 덩어덩어리 떠넣기도 한다.

'썩인절편'은 1934년 발간된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 나와 있다.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하룻밤 동안 불려서 시루에 넣고 소금물을 뿌려서 잘 찌든다. 그리고 안반에 보자기를 펴고 썩아서 대강 찧어서 헤어지지 않을 만큼 되거든 보자기를 벗겨 내고 쳐서 쌀알이 보이지 않도록 될 때에 연한 썩을 깨끗하게 씻어서 삶아 절구에 곱게 찧는다. 이것을 떡에 함께 섞어서 다시 서로 잘 섞이기 까지 찧어서 적당히 빻어서 팔이나 풍가루를 묻힌다.

'썩개떡' 만드는 법은 1936년 간행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소개돼 있다.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갈아 다시 체에 친 다음 물에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만든다. 여기에 썩도 함께 넣고 반죽해 밥 지을 때 함께 찌서 기름을 발라 먹는다.

음식 전공자의 음양오행(陰陽五行) 관점에서 보면 녹색은 간 기능과 신진대사에 효능이 있어 썩을 이용한 음식은 봄철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는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體質)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다가오는 봄바람에 추억의 고식재료(古食材料)인 썩 관련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